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게 되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여인들이 기뻐하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칭송하였던 것을 사울이 불쾌하게 받아들여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며 적군인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한 군사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을 세우고 다윗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유는 타당한 이유도 아니었고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22:8)"을 꾀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예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의 이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아비멜렉을 비롯한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을 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에돔 사람 도엑이 맡아 벌였던 일이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2:21). 사울의 악행이 끝을 모르고 그 강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거짓 주장은 사실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믿지 않았고 사울의 곁에 있던 신하들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다윗에 대한 자신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거짓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내며 다윗에 대한 화를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24장 16절부터의 말씀에는 다윗의 선행에 대한 사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피신해 있던 굴 안으로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는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의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24:17).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에서 더욱 견고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 광야 산골에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녔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다가 굴에 숨어 있을 때 드렸던 기도와 찬송 시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2절)"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5절)"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러한 혼돈과 시련의 시기에도 자신의 마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8절)."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꺼이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자신 앞에 나타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느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23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 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가 비록 왕이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생들의 진정한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재판관들은 그 판결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자신은 악한 사울에게 쫓겨 다닐지라도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

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24:12)"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24:15).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 대한 보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15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선교여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일어나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심판과 복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악은 잘 판단하고 심판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악은 잘 못 보기도 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